

월요광장

노인들의 전성시대를 기대하며



이 상 민
광주대 교수

집에서 밥만 축내며 비생산적이었던 ‘아해’들이 1920년 방정환 선생께서 일본 유학길에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1922년 어린이날 (당시는 소년일)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미래의 꿈나무’라는 사회에 희망을 주는 강한 사회적 의미로 격상되었다.

20세기에 어린이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21세기에는 노인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의 집이 아닌 사회의 힘으로 변해야 할 때다.

일본 나가노현에는 일본식 만두 오야케를 만드는 오가와장이라는 회사가 있다. 주민이 출자하고 동네에 놓고 있는 창고들을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 매

출액이 7억5천만 엔을 웃돈다. 100명의 고용인 중 80%가 고령자라고 한다. 전 직원이 10년간에 걸쳐 미국을 다녀왔다. 중고생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영어회화를 공부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도 ‘춘천 시니어클럽’의 경우 2004년부터 10여 명의 노인이 콩나물 판매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콩두부 판매, 식당 운영, 전통 된장과 간장 판매, 방앗간 운영, 도시락 판매, 한옥 판매 등 10개 사업을 통해 230여 명이 일하는 노인일터로 성장했다.

노인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일을 개척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꾼이자 생산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노인들이 울려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이웃들이 살아왔던 모든 스토리들이 다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있고 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고령자들이 지역의 보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토착자원들을 재창조해야 한다. 노인들의 지혜와 솜씨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새 부대에 담고, 새로운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지혜를 전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창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직접 지혜와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일본 류슈에 히마와리테라는 향토 가정 요리를 전문으로 파는 농가 레스토랑이 있다. 제철 식자재를 이용한 식문화 창조와 계승을 목표로 지역의 고령여성들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연 5만 명이 방문한다. 그런데 이 성공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우리만 먹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출발했다고 한다. 즉 고령자의 지혜와 솜씨를 나누어보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노인들 스스로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노인은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행해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서 찾는 보람이 커져야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나이 먹는 보람, 즐거움은 지혜와 추억과 경륜을 여유롭게 나누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살만큼 살았다’며 마음을 놓고 역할을 멈추면 마음도 몸도 금방 허물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집박으로 나가서, 서로 모여 놀아야 한다. 춘천 시니어 클럽도 처음엔 춤추고 노래하는 모임이었다. 또한 혼자 하지 말고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조직화해야 한다. 혼자서 위축되지 만 모여서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찾으면, 개인, 가정, 사회가 모두 활기차게 된다. 최근 TV에서 새로운 할배, 할머니 프로그램들이 우리 일상에 활기를 주고 있다. 노인 배우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노인들이 사회의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는 출발일지 모른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으로부터 ‘왕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활동하면서 진정한 노인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휴정기를 보내며



김 경 운
광주지법 판사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우리 법원에서 7월 말부터 2주간 가졌던 여름 휴정기가 지나갔다. 법원의 휴정기라고 해보아 재판일정만 없을 뿐 판사들에게는 평소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캐비닛 한구석에 모셔두었던 어렵고 복잡한 사건기록을 큰 맘 먹고 꺼내 차분하게 검토하라고 주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당장 재판이 없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마냥 손 놓고 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긴장의 연속인 재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미뤄두었던 휴가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은 틀림없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던 휴정기가 끝나자 아쉬움도 잠시, 법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몇 차례의 비와 함께 무더위는 기세가 꺾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다. 한낮의 매미 울음은 점점 잦아들고, 대신 야밤의 풀벌레 소리가 반갑게 들려온다. 게다가 절기상으로도 모기 입이 뺨뺨어진다든 처서(處暑)가 지났고, 예년에 비해 이례 추석도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과 함께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듯하다. 이 무렵이 한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던데,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각자가 기대하는 늦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무더위와 휴가를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추슬러 심기일전하고, 그간 벌어놓은 일들을 잘 거둬들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몇몇 호기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2014

년을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3분의 2가 지나고 계절도 여러 번 바뀌어 가을로 접어들다니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흔히들 느끼는 특별한 것 없는 일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내가 몸담고 있는 법원의 사계바늘이 유난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실 새 없이 몰려드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짜인 빽빽한 재판일정에 맞춰 움직이므로 멀리 내다볼 여유를 갖기 어려운데다가 매번 사건이 바뀌어두고 처리 과정은 크게 다를 바 없어 헛바퀴 도는 다람쥐 마냥 항상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건이 주는 무게감과 처리에 대한 압박감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확을 위해서는 무더위와 휴가를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추슬러 심기일전하고, 그간 벌어놓은 일들을 잘 거둬들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물론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에만 갇혀 좁은 시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자칫 꼬리를 더듬는 장님 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올바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안의 본질 파악은 경우에 따라서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에 대한 고려가 지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함께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일반 열심 하 해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기록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올해 처음으로 변론을 여는 단독재판을 맡아 사건처리에 정진했는데 나날을 보내던 중 휴정기를 맞아 딱딱프린 이 실의는 위기의식도 다시 몰려드는 사건에 떠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당분간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 매진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불이 매몰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그보다 다음 휴정기에는 더 깊은 고민과 함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社說

광주·전남 고교, 고른 학력신장 피해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실력광주’가 재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약간의 부진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역 고교생들이 다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지적됐던 학력 저하의 우려를 씻어내는 것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사고공저’(畠高公低·사립고 성적이 높고 공립고는 저조)는 여전했다. 또 전남은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도농격차도 지속돼 개선책 마련이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최상의 광주 수능 성적은 남구 사립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주춧돌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교육 특구’로 불리는 남구에는 일반계 공립고는 한 곳도 없다. 대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사립고 10개 교가 학력 신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남구는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

된다.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학원비 지출에 따른 가계 압박과 상대적 박탈감을 수반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광주지역 공사립 고교 학력격차는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지적됐던 학력 저하의 우려를 씻어내는 것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사고공저’(畠高公低·사립고 성적이 높고 공립고는 저조)는 여전했다. 또 전남은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도농격차도 지속돼 개선책 마련이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최상의 광주 수능 성적은 남구 사립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주춧돌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교육 특구’로 불리는 남구에는 일반계 공립고는 한 곳도 없다. 대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사립고 10개 교가 학력 신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남구는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

광주 도심서도 싱크홀, 근본 대책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에서도 싱크홀(동공·洞空)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싱크홀은 도로면이 갑자기 침하돼 발생하는 만큼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 오후 2시34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앞 교차로에서 생긴 싱크홀도 직경 50cm, 깊이가 1m50cm나 돼 이 일대를 오가는 차량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싱크홀 발생 당시 이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면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해 운전자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또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한때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도로 밑을 통과하는 오수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돼 지반이 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땅개짐 현상 자체만으로도 불안감

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의 오수관이 노후화되는데 집중호우가 잦아 언젠가는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잠실 인근의 잇따른 싱크홀을 보듯 지하철 공사과 제2롯데월드타워 공사 등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상하수도, 지하수 이동 경로와 수량 변화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땅속 지도도 없다고 한다. 불 수위약방 문서 대체를 해준 것도 이런 이유다.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사전 예방 원칙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는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된 상하수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땅속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앤 어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질병에 관해서 들으셨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39년 7월 4일, 한 야구선수가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인생을 마무리하며 은퇴 연설을 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루이스 게리(Henry Louis Gehrig·1903~1941). 그는 1923년 뉴욕 양키스에 입단해 17시즌 동안 2164경기에 출전해 홈런 493개, 통산타율 3할4푼의 빼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1934년에는 타격 3관왕(타율 0.363, 홈런 49개, 165 타점)을 차지했으며, 1927년과 1936년 두 차례나 아메리칸리그 MVP로 뽑혔다. 4번 타자인 그는 3번 타자 베이브 루스와 함께 ‘살인 타선’(Murderer’s Row)으로 불렸다. 2130경기 연속출장 기록을 세워 ‘철마’(The Iron Horse)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에게 어느 날 병마가 찾아왔다. 그의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돼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증세를 보였다. 매년 10만 명당 2명의 환자를 발생시

킨다는 이 희귀질환은 ‘루게릭병’(ALS) 또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으로 불린다.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 우리나라는 2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에 국내 유명인사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미국 루게릭병 협회에서 루게릭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안한 기부 캠페인이다. 얼음을 뒤집어쓴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할 3명을 지목하면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얼음을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관련 기부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호평과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7월 29일부터 19일간 이 캠페인에 26만 명이 동참해 1330만 달러(135억5000만원)를 기부했다고 한다. ‘얼음을 뒤집어쓰기’ 캠페인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기 고

교원봉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 동 범
미래교육발전포럼 공동대표

먼저 각급학교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임신 6개월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던 일,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했다는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

렀는지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은 문제시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갑해서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방식을 부리고 기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서양 속담에 ‘매를 멀리하면 그 아이는 망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꾸지람을 하거나 나무라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습지도

는 물론 기본생활 지키기에서도 잘못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끔한 충고와 함께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훈육 및 생활지도기능은 이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지도권을 매우 제한시켜 놓았다. 이리다보니 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순응하지 않는다.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듣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지도력을 잃게 되고 만다. 당연히 문제 학생에 대한 회피와 함께 무관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행복한 학교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규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 보인다. 개인의 인권이 집중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불행한 학교로 가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다. 미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고 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

무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미래 의젓한 성인이 되도록 안내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성장과정에는 학생들 중에는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무관심이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당국은 교사·학부모·교육관계자 등의 교권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교사가 수업이나 지도활동 중에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교육이 살고 학교가 살며 국가가 살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식당 공기밥 크기 달리해 음식쓰레기 줄였으면

꼭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식사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남성들과 달리 많은 여성들은 식당에서 먹는 공기밥 3분의 1 정도 남긴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이렇게 여성 회사원

들이 남겨서 버리는 공기밥의 양을 쓰레기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이다. 나는 동료 남성 직원에게 밥을 덜어주고 먹는다. 남아서 버릴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게 귀찮아 그냥 먹다가 남기가 일쑤다. 식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이 크지

않은 아이들은 밥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 한 공기밥을 주고 돈을 다 받는다. 결국 음식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지는 밥과 쓰레기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등 죄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밥을 많이 먹는데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렀다. 식당 공기밥 기준도 크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반공기 개념도 도입해서 음

식 쓰레기를 좀 줄였으면 한다. 참고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축 전문점에 가면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접하는 그릇 크기의 거의 3분의 1 크기 작은 종지에 반찬을 내어 준다. 하지만 필요하면 더 갖다준다. 그러므로 이 축전문점 같은 크기의 종지로 반찬점시도 좀 작게 해서 상차림을 하는 노력을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 광주시내 각 식당들과 시 위생관련 부서의 공동 노력을 요청해 보고 싶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